

Aiming to Please God: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October 19, 2023

Aloha MCP ‘Ohana,

It’s October 19,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As some of you know, when I was growing up, I was blessed to be able to visit Hawai’i many times with my family. My dad had a good job, we had a family friend who owned condos on Māui and the Big Island, and so we came here almost every summer.

At first, to get to Māui or the Big Island, we had to fly to Honolulu and then take an interisland flight on either Aloha Airlines or Hawaiian Air. But by the time I got to high school, United Airlines had started a direct route back and forth between LAX and Kahului.

And so it was that one July day my family boarded a United Airlines jet in Kahului, and it took to the skies, bound for Los Angeles. We’d only been airborne for a few minutes, though, when the pilot came over the intercom. He said, not to be alarmed, but there was a minor malfunction with the plane’s navigation system, and we needed to divert to Honolulu to get it fixed. “If we don’t take care of this now,” the pilot joked, “we could end up in El Salvador in a few hours, ladies and gentlemen, so please excuse this unscheduled detour.”

It’s funny how just being a degree or two off course at the start of a long journey can end up making a big difference in where one finally arrives.

For example, let’s say that as I set out to travel from Point A to Point B, I’m just one compass degree slightly off course. If the distance I’m traveling from Point A to Point B is one foot or less, then I will only miss my intended destination (Point B) by just 2/10s of an inch. Which seems pretty insignificant, right?

But now imagine that I’m actually going farther than just one foot, and imagine I start off just one degree off course. After traveling 100 yards, I’ll be off by 5.2 feet. Which is still not huge. But if I’m running the hundred yard dash, I’ll end up in some other runner’s lane, and he or she probably won’t appreciate that.

Now let’s say I’m going even further. After I go a mile, I’ll be off by 92.2 feet. That’s almost as long as a 737 airplane.

Let’s say that I travel on that 737 airplane from Honolulu to Los Angeles. One degree off course would mean that I would land 42.6 miles away from LAX. Somewhere near Laguna Niguel, in other words. (Not exactly “El Salvador,” but still a good ways off the mark, nonetheless).

Traveling around the globe from LAX, I’d miss the City of Angeles on my return by a whopping 435 miles, which would put me somewhere in the middle of Baja California, halfway to Cabo and perhaps near the little fishing village of San Rosalita.

In a rocket ship going to the moon, I'd be 4,169 miles off the mark (nearly twice the diameter of the moon). Going to the sun, I'd miss by over 1.6 million miles (nearly twice the diameter of the sun). And traveling to the nearest star, I'd be off course by over 441 billion miles (120 times the distance from the earth to Pluto, or 4,745 times the distance from Earth to the sun).

In other words, one little degree, spread out over distance and time, adds up to a huge difference. And I think that's not only true when we travel by plane (or boat or rocket ship). It's true during our life's journey too.

Each little decision you or I make in the here and now leads someplace. And so if our decisions are a little "off the mark," in isolation or at first that may not seem like such a big deal. Likewise, any little choice or decision which we may make for the good, may also seem to have negligible effects at first.

But the consequences of all of our decisions do go on and on and on. And so the things we choose to do, or not to do, really do matter. Even the smallest little choice to do good, or not to, spread out over time and distance really can make a big, lasting difference. So, as we chart our course through life, let's choose wisely and well, friends, aiming always to please God.

Me ke aloha,
Pastor Ron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MCP'오하나,

10월 19일은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자라면서 가족과 함께 하와이를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셨고, 가족 친구 중 마우이와 빅 아일랜드에 콘도를 소유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여름마다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 마우이나 빅 아일랜드에 가려면 호놀룰루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와이안 에어의 알로하 항공을 타고 섬 간 비행편을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이 LAX와 카홀루이를 오가는 직항 노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카홀루이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제트기에 탑승하여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륙한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조종사가 인터콤을 통해 왔습니다.

그는 놀라지 말라고 말했지만, 비행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사소한 오작동이 발생하여 수리를 위해 호놀룰루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엘살바도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예정에 없던 우회로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농담했습니다.

긴 여행을 시작할 때 코스에서 1~2도만 벗어나도 결국 목적지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여행을 떠날 때 나침반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1피트 이하라면 의도한 목적지(B 지점)를 2/10인치만 놓치게 됩니다.

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1피트보다 더 멀리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코스에서 단 1도만 벗어나 출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야드를 이동한 후 5.2피트만큼 이동합니다.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야드를 달리고 있다면 다른 주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아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멀리 나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1마일을 가면 92.2피트만큼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거의 737 비행기만큼 길다.

제가 호놀룰루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737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스에서 1도 벗어나면 LAX에서 42.6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하게 됩니다.

즉, Laguna Nigel 근처 어딘가에 있습니다.

(정확히 "엘살바도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방법입니다).

LAX에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무려 435마일에 달하는 앙헬레스 시를 놓칠 것입니다. 그러면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한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카보(Cabo)의 중간쯤에 있고 아마도 산 로살리타(San Rosalita)라는 작은 어촌 마을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달로 가는 로켓선에서 나는 목표 지점에서 4,169마일(달 직경의 거의 두 배)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태양으로 가면 160만 마일(태양 직경의 거의 두 배) 이상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여행하면 4,410억 마일(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의 120배 또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4,745배)이 넘는 거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즉, 작은 정도가 거리와 시간에 걸쳐 퍼져 있으면 큰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비행기(또는 보트나 로켓선)로 여행할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리는 각각의 작은 결정은 어딘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약간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단독으로 또는 처음에는 그다지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위해 내리는 작은 선택이나 결정도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결과는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기로 선택한 것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을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시간과 거리에 걸쳐 퍼져 있으면 실제로 크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로를 계획할 때, 친구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나 알로하,

론 목사